

대전 ·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dwryu@hanbat.ac.kr)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목 차

< 요약 >

- I. 서론
- II. 금융구조개혁과 지역금융 위축
- III.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
- IV.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 V. 결론 및 요약

《요 약》

-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금융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차원에서 정책적 배려와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첫째, 지역환원금융 강화와 금융-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투자와 서비스제공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신용정보를 축적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 셋째,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공생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소재 금융기관과 자치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넷째 지역금융기관들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금융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아울러 지역금융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지역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며, 지역 간 금융 불균형과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강구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정부 주도적 개발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정책금융이었다.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금융적·재정적·행정적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으며 모든 개발전략 및 운용방안이 중앙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결국은 중앙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 지역경제는 정치·경제·금융·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결국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며 특히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금융부분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져 지역금융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지역금융기관은 나름대로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역금융기관은 더욱 쇠퇴하여 지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그 역할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역금융의 발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지역금융의 현황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폭적인 금융구조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지역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 1998년 4월에서 2000년 8월까지 추진된 1차 금융구조조정에서 지방에 본사를 둔 5개 은행이 퇴출되었는데, 이 중 2개 은행(경기, 충청)은 지방은행이고 3개 은행(동남, 대동, 동화)은 중소기업 전담은행이었다.
 - 2000년 9월부터 2003년까지 추진된 2차 금융구조조정에서 3개 지방은행(광주, 경남, 제주)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10개의 지방은행 중 3개(부산, 대구, 전북)만이 독자경영을 하게 되었다.
-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된 2차례의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지방은행과 중소기업 전담은행들이 대부분 퇴출 혹은 합병되었다.
-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금융의 위축은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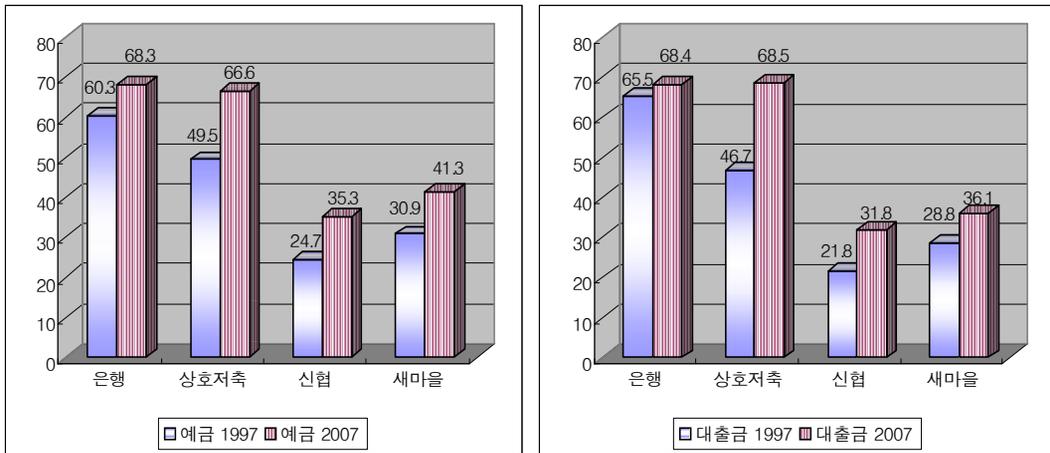
II. 금융구조개혁과 지역금융 위축

1. 금융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금융 위축

- 대형은행 위주의 금융개혁은 금융의 수도권집중과 지역금융의 위축을 가져왔다. 특히 지방은행 및 지역밀착형 서민 금융기관들의 퇴출과 신인도 저하는 대형우량금융기관이 있는 수도권의 금융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림 1] 여수신 수도권 비중

(단위 : %)



[수신비중]

[여신비중]

- 예금은행의 예금추이를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구성비가 1997년의 60.3%에서 2007년에는 68.3%로 증가하였으며, 대출금도 65.5%에서 68.4%로 증가하였다.

- 지방의 퇴출이 많았던 상호저축은행은 수도권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수신비중이 1997년의 49.5%에서 2007년에는 66.6%로 증가하였고, 여신 비중도 46.7%에서 68.5%로 증대되었다.
- 신용협동조합의 수신비중은 24.7%에서 35.3%로, 여신비중은 21.8%에서 31.8%로 증가하였다. 새마을금고 예수금의 수도권 비중은 30.9%에서 41.3%로 증가하였고, 여신비중도 28.8%에서 36.1%로 증대되었다.

<표 1> 금융기관별 점포수 수도권 비중

(단위 : 개, %)

구 분	수 도 권			지 방			수도권 비중		
	1997	2007	증감율	1997	2007	증감율	1997(A)	2007(B)	B-A
일반은행	3,413	3,382	-0.9	2,575	2,155	-16.3	57.0	61.1	4.1
종합금융회사	16	9	-43.8	14	3	-78.6	53.3	75.0	21.7
생명보험회사	5,222	2,252	-56.9	7,022	2,262	-67.8	42.6	49.9	7.3
상호저축은행	137	177	29.2	204	135	-16.6	40.2	56.7	16.5
신용협동조합	440	311	-29.3	1,226	696	-43.2	26.4	30.9	4.5
상호금융	226	227	0.4	1,507	1,199	-20.4	13.0	15.9	2.9
새마을 금고	877	468	-46.6	1,866	1,095	-42.4	32.0	30.3	-1.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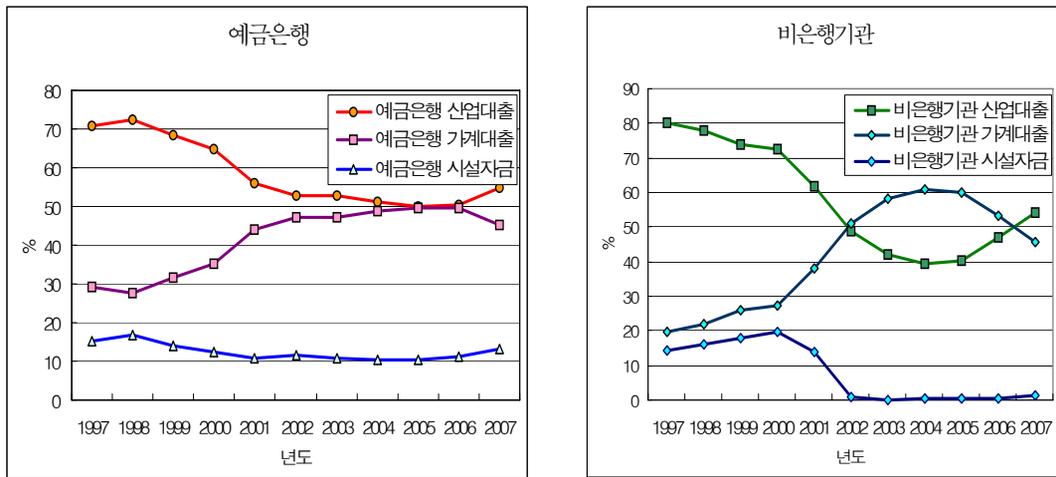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수 감소율 추이를 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금융기관의 감소율이 높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증대시키고, 지방의 서민과 영세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은행의 경우 수도권은 0.9% 감소에 그쳤으나, 지방은 지방은행의 퇴출 등으로 지방평균 16.3%로 감소하였다. 일반은행의 수도권 비중도 1997년의 57%에서 2007년에는 61.1%로 4.1%p 증가하였다.
- 종합금융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에 비하여 수도권 집중이 큰 폭으로 증대되었으며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도 새마을 금고를 제외하면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의 퇴출률이 높아 지역영세민과 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본 영향력 증대와 성장잠재력 약화

-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으로 경제활동에서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거대금융그룹의 탄생과 금융의 기관화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 금융기관 산업별 대출 추이

(단위: %)



-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산업대출과 시설자금 대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계자금 대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비중은 1997년의 70.8%에서 2007년에는 54.8%로 감소하였고, 가계자금 대출은 29.2%에서 45.2%로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시설자금 투자는 15.1%에서 13.3%로 감소하였다.
 - 비은행 금융기관의 산업대출과 시설자금은 1997년의 80.1%와 14.4%에서 2007년에는 54.4%와 1.5%로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은 19.9%에서 45.6%로 증가하였다.
-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라 자본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은 크게 증대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 조달과 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어 실물투자 위축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Ⅲ.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

1. 낙후된 금융부문

- 대전충남의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어 지역 금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대전충남의 실물부문 구성비는 인구 7.1%, 지역내총생산(GRDP) 8.2%, 사업체 수 6.8%를 점하고 있으나, 금융부문은 4%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전충남지역 실물과 금융부문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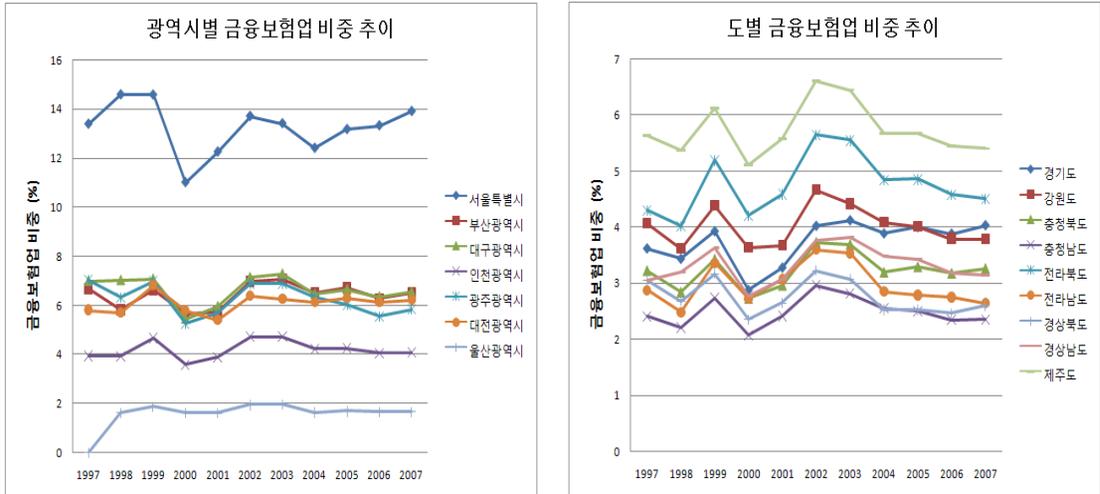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인 구		GRDP		사업체 수		점포수		은행예금		은행대출	
	1997	2007	1997	2007	1997	2007	1997	2007	1997	2007	1997	2007
수 도 권	45.5	48.6	46.5	47.7	44.0	46.8	57.0	61.1	65.5	68.4	60.3	68.3
지 방	54.5	51.4	53.5	52.3	56.0	53.2	43.0	38.9	34.5	31.6	39.7	31.7
대전충남	6.9	7.1	7.0	8.2	7.0	6.8	5.0	4.7	4.0	4.5	4.3	4.3
대 전	2.8	3.0	2.3	2.2	3.0	2.8	3.1	2.8	2.2	2.5	2.3	2.1
충 남	4.1	4.1	4.7	6.0	4.0	4.0	1.9	1.9	1.8	2.0	2.0	2.2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그림 3] 지역별 GRDP중 금융보험업 비중추이

(단위: %)



- GRDP중 금융보험업 비중은 수도권이 지방에 비하여 높고 증가추세를 보여준 반면 지방은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대전충남의 금융보험업 비중은 전국평균은 물론 지방평균에 비해서도 추세적으로 낮아 금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산업이 실물 경제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를 나타내는 금융입지지수 LQ(Location Quotient)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증가, 지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의 예금 LQ지수는 1997년의 1.41에서 2007년에는 1.44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전충남의 예금 LQ지수는 1997년의 0.57에서 2007년에 0.55로 감소하여 수도권은 물론 지방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전충남지역 금융 LQ지수

(단위: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도권	예 금	1.41	1.43	1.45	1.42	1.42	1.40	1.42	1.44	1.44	1.44	1.44
	대출금	1.30	1.33	1.32	1.36	1.34	1.35	1.38	1.41	1.41	1.41	1.43
지 방	예 금	0.65	0.63	0.61	0.61	0.61	0.62	0.61	0.61	0.61	0.60	0.60
	대출금	0.74	0.72	0.71	0.67	0.68	0.66	0.65	0.64	0.63	0.63	0.61
대전충남	예 금	0.57	0.58	0.55	0.55	0.60	0.57	0.57	0.57	0.56	0.57	0.55
	대출금	0.62	0.58	0.59	0.55	0.59	0.59	0.57	0.58	0.57	0.55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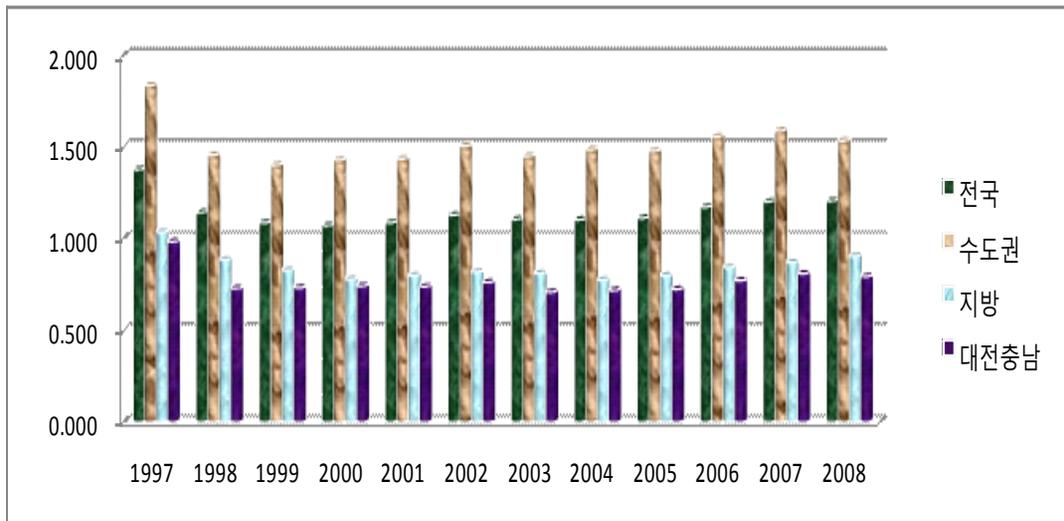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 대출금의 LQ지수도 수도권은 1997년의 1.30에서 2007년의 1.43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전충남의 대출금 LQ지수는 0.62에서 0.5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대전충남의 금융 LQ지수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 평균수준 보다도 추세적으로 낮아 대전충남의 금융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지역의 향토 기업들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향토 금융기관들의 퇴출은 지역의 자금경색을 심화시켜 낙후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지역금융기관 퇴출과 금융 접근성 약화

- 정부의 지역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특징은 지역산업과의 관계금융이나 지역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원을 통한 정상화보다는 대형 금융기관에 통폐합 혹은 퇴출 등의 조기정리 위주로 진행되었다.
- 지역고객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보급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밀도(金融密度)가 있다. 금융밀도가 높을수록 금융서비스제공과 편의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 인구 1만명 당 대전충남지역 일반은행 금융밀도는 1997년의 0.99개에서 2008년에 0.80개로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은 물론 지방평균 0.91개에 비해서도 낮아 금융접근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지역별 금융밀도 추이



<표 4>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

구 분	1997(A)	2000(B)	2003	2005	2008(C)	증감율 (B-A)/A	증감율 (C-A)/A	전국증감율 ('97~'08)
일반은행	302	226	228	233	264	-25.2	-12.6	-5.0
종합금융회사	1	0	0	0	0	-100	-100.0	-100.0
생명보험회사	761	420	293	486	285	-44.8	-62.5	-61.9
상호금융	219	211	200	200	187	-3.7	-14.6	-18.1
상호저축은행	33	19	17	17	18	-42.4	-45.5	-1.8
새마을금고	201	135	121	116	108	-32.8	-46.3	-44.7
신용협동조합	171	137	110	110	105	-19.9	-38.6	-40.3

자료: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및 내부자료.

- 또한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 점포수 추이를 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의 퇴출 등으로 1차구조조정이 끝난 2000년까지 가장 많이 감축되었고, 2003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일반은행의 점포수는 1997년의 302개에서 2000년에 226개로 76개가 감소하여 25.2%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는 점포수가 증가하여 2008년에 264개를 기록하였으나, 감소율은 12.6%로 전국 평균 감소율 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일반은행의 점포수는 1차 구조조정이 끝난 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합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합병 등으로 점포수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종합금융회사는 한길중금의 퇴출로 100% 퇴출률을 기록하여 지역 기업들의 자금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지방은행과 함께 지역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 또한 높은 퇴출률을 보여주고 있다.
- 농수축임협의 단위조합인 상호금융 영업점포수는 1997년의 219개에서 2008년에 187개로 14.6%가 감소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45.5%, 새마을금고는 46.3%, 신용협동조합은 38.6%가 감소하여 지역영세민과 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별 수신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잔액(97)	구성비 (97,A)	2000	2003	2005	잔액(07)	구성비 (07,B)	B-A
예금은행	97,401	30.9	46.2	53.2	51.5	305,387	44.3	13.4
대 전	56,761	18.0	28.8	32.9	30.9	177,799	25.8	7.8
충 남	40,640	12.9	17.4	20.3	20.6	127,588	18.5	5.6
비은행기관	218,275	69.1	53.8	56.8	48.5	384,730	55.7	-13.4
지역밀착형기관	117,068	37.1	38.1	36.7	40.7	249,578	36.2	-0.9
상호금융	64,771	20.5	24.5	25.0	27.1	165,900	24.0	3.5
상호저축은행	18,006	5.7	1.9	1.9	2.9	18,459	2.7	-3
새마을금고	15,812	5.0	6.0	5.5	5.8	34,490	5.0	0
신용협동조합	18,479	5.9	5.7	4.3	4.9	30,729	4.5	-1.4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및 내부자료.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전충남지역의 금융 자금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예금은행을 비롯한 대형금융기관으로 이동하였다.
- 금융기관별 구성비중은 예금은행이 1997년의 30.9%에서 2007년에 44.3%로 13.4%p 증가하였으나, 비은행기관의 구성비는 69.1%에서 55.7%로 감소하였다.
- 특히 지역의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금융 기관들의 구성비는 1997년의 37.1%에서 2007년에는 36.2%로 감소하였다.

<표 6>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별 여신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잔액(97)	구성비 (97,A)	2000	2003	2005	잔액(07)	구성비 (07,B)	B-A
예금은행	87,011	44.7	59.1	69.0	66.0	344,134	65.6	20.9
대 전	46,766	24.0	27.2	35.5	33.9	166,049	31.7	7.7
충 남	40,245	20.7	31.9	33.5	32.1	178,085	33.9	13.2
비은행기관	107,851	55.3	40.9	31.0	34.0	180,193	34.4	-20.9
지역밀착형기관	82,115	42.1	36.8	30.8	33.7	174,803	33.3	-8.8
상호금융	44,004	22.6	23.8	19.8	22.0	113,572	21.7	-0.9
상호저축은행	14,094	7.2	2.3	2.3	3.5	17,947	3.4	-3.8
새마을금고	10,101	5.2	5.0	4.8	4.2	20,162	3.8	-1.4
신용협동조합	13,916	7.1	5.7	3.9	4.0	23,122	4.4	-2.7

자료 : <표 5>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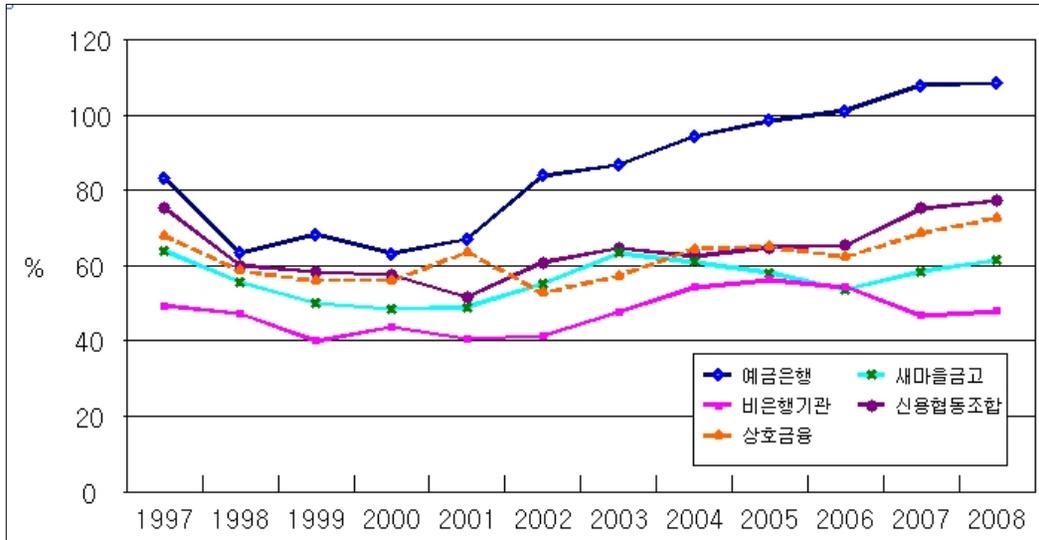
-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예금은행의 가계자금 및 소매금융 강화로 예금은행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별 여신 구성비는 예금은행이 1997년의 44.7%에서 2007년에 65.6%로 20.9%p 증가하였고, 대전보다는 충남의 증가율이 높았다.
 - 반면에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률이 높았던 종합금융회사와 지역밀착 금융기관들의 지역여신 구성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은행기관의 여신구성비는 1997년의 55.3%에서 2007년에 34.4%로 감소하였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구성비도 42.1%에서 33.3%로 감소하였다.

3. 지역자금 역외유출과 지역금융의 산업지원기능 약화

1) 지역자금 역외유출

- 지역금융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되고, 지역의 실물부문 발전으로 금융수요가 증대되어 금융산업이 발전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 금융부문에서의 유출은 예대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5]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별 예대율 추이



- 외환위기 이후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된 2000년까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와 건전성 강화, 부실채권의 정리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 대전충남의 예금은행 예대율은 1997년의 83.4%에서 2000년에 63.6%로 하락하였다.
 - 그러나 2001년부터 대기업의 직접금융 확대와 부채비율 감축노력으로 대출수요가 감소하였고, 예금은행들은 지역금융시장에서 소매금융 강화와 기업 대출확대 전략 등으로 예대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04년도부터 예대율이 100%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08.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행복도시와 천안-아산지역의 개발특수로 인한 대출수요 증가와 예금은행의 자금이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비은행기관의 예대율은 1997년의 49.4%에서 2007년에 46.8%로 역외 유출이 증대되었고, 지역조성자금의 절반이상을 유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밀착 금융기관 중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이 1997년의 78.3%에서 2007년에 97.2%로 증가율이 높았고, 상호금융은 67.9%에서 68.5%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63.9%에서 58.5%로, 신용협동조합은 75.3%에서 75.2%로 감소하였다.
- 비은행기관의 예대율이 낮은 이유는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우체국 예금 등이 수신위주의 업무 특성상 자금의 역외유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도 지역 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지역 내의 여신 등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잉여자금을 연합회 등 본부로 이관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비은행기관들의 자금운용방식이 개선되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 지역금융의 산업지원기능 약화

-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의 저축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축적된 자금을 지역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그러나 향토은행을 비롯한 지역밀착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퇴출과 외국계 금융기관 및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는 시중은행들의 소매금융과 지역 금융시장 공략 강화,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증대 등으로 지역금융의 산업지원 기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 산업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잔 액 (1997)	구성비 (97, A)	2000	2003	2005	잔 액 (2007)	구성비 (07, B)	B-A
전국(산대)	1,418,754	70.8	64.9	52.9	50.2	4,400,431	54.8	-16.0
대전충남 산업대출	57,124	65.7	63.2	56.2	48.2	175,063	50.9	-14.8
대 전	28,030	59.9	51.5	50.6	44.0	81,827	49.3	-10.6
충 남	29,094	72.3	73.2	62.1	52.7	93,236	52.4	-19.9
대전충남 가계대출	29,887	34.3	36.8	43.8	51.8	169,071	49.1	14.8
대 전	18,736	40.1	48.5	49.4	56.0	84,222	50.7	10.6
충 남	11,152	27.7	26.8	37.9	47.3	84,849	47.6	19.9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및 내부자료

- 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구성비 추이를 보면 산업대출은 1997년의 65.7%에서 2007년에 50.9%로 14.8%p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계대출 구성비는 34.3%에서 49.1%로 14.8%p 증가하였다.

- 대전충남지역의 산업대출 비중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추세적으로 낮아 산업지원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도 전국평균 예금은행 산업대출 비중은 54.8%로 대전충남이 3.9%p 낮았고 가계대출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지역의 산업대출 구성비는 72.3%에서 52.4%로 19.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1. 지역금융-산업간 선순환구조 정착

- 대전충남지역은 실물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자금조성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된 자금도 지역에 투자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역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간의 선순환(善循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지역소재 금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투자와 서비스제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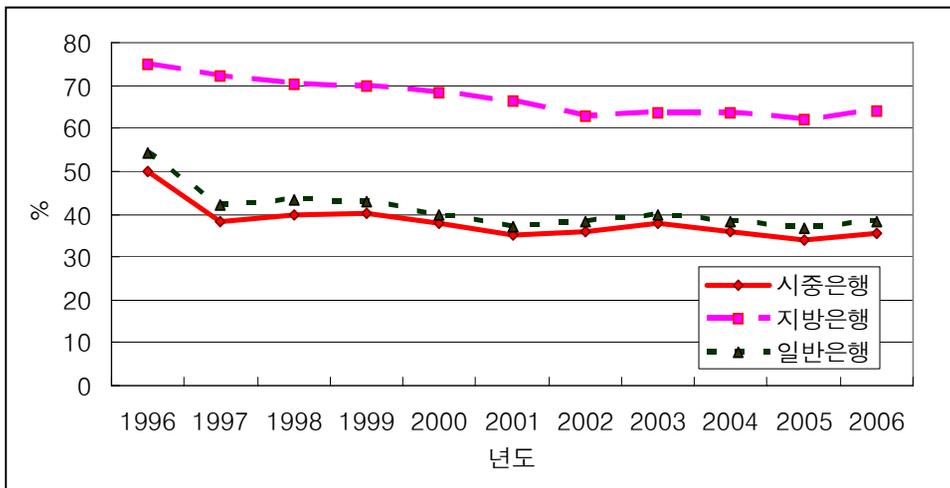
-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인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¹⁾과 서민금융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지역개발금융기금(CDFI Fund), 개인개발계정(IDA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등으로 지역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의 지역은행들도 지역기업들과의 관계금융, 유연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일본은 중소기업의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lationship Banking Action Program”을 공표(2003년)하고, 지역금융기관들에게 관계금융 강화계획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둘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제도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와 금융간의 동태적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금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역금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공공자금을 지역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생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특히 역외유출비율이 높은 비은행기관의 자금환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출기법의 개발과 투자사업 등의 다변화로 지역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1977년에 제정된 지역재투자법(CRA)은 금융기관들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에 금융서비스와 투자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재지역에 대한 대출비율,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제공 등을 평가하여 금융기관 평가나 금융상품개발 허용 등에 반영함

2.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높았던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이 대거 퇴출되었고, 지역금융의 존립기반도 축소되었다.
- 금융기관들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가계, 담보대출 등을 선호하게 되고,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금융접근이 어려워졌고, 리스크에 따른 별척성 금리도 높아졌다.

[그림 6]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추이



- 외환위기 이후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추이를 보면 시중은행은 1996년의 50%에서 2006년에는 35.6%로 14.4%p 감소하였다.

<표 8>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잔 액 (1997)	구성비 (97, A)	2000	2003	2005	잔 액 (2007)	구성비 (07, B)	B-A
대전충남	49,469	56.9	56.9	51.7	42.5	160,269	46.6	-10.3
대 전	24,892	53.2	45.5	45.2	36.3	70,168	42.3	-10.9
충 남	24,577	61.1	66.6	58.7	49.1	90,101	50.6	-10.5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및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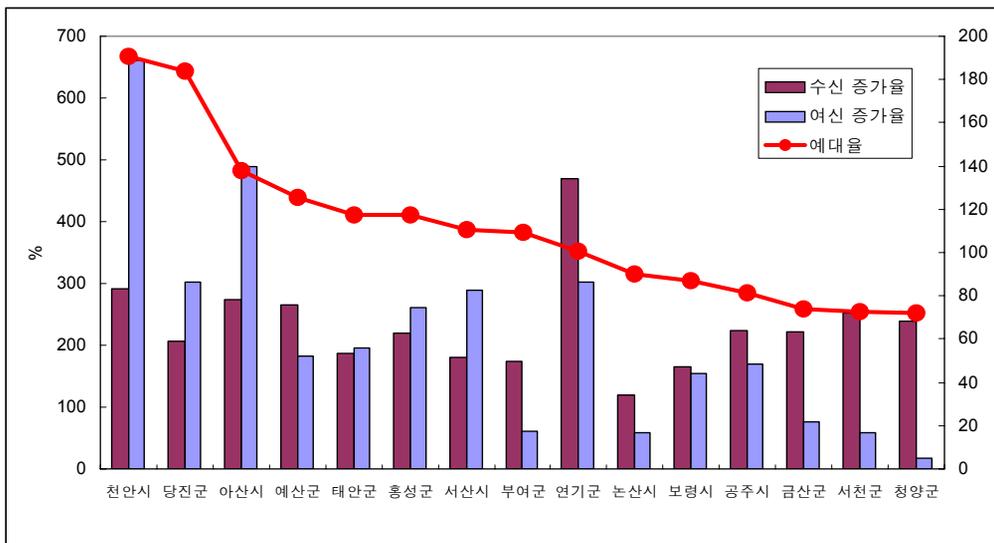
-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1997년의 56.9%에서 2007년에 46.6%로 10.3%p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은 53.2%에서 42.3%로 10.9%p 감소하였고, 충남은 61.1%에서 50.6%로 1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지역 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첫째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육성이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현재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과의 리스크 분담을 통한 금융 가용성(availability) 확대와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창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자금 등)과 기금,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지방은행에 대한 높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신용보증기관 등의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높은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은행이 퇴출된 경기와 충청지역에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용보증과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성장유망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연고기업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시설자금 등의 보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셋째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신용정보를 축적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 지역금융기관들은 경영능력과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들에게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영과 자금운영 컨설팅, 법률 및 세무 상담, 시장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금융기관별로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들의 공동투자로 지역중소기업의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기업 정보센터’ 혹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등을 설치하여 지역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지역산업 · 구조 고도화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공생전략 추진

-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인 실물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할 경우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사회발전에 활용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금융의 발전을 억제하는 악순환(惡循環)에 빠질 수 있다.
- 충남의 서북부지역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대규모 IT산업, 철강단지, 석유화학 및 자동차산업 등의 개발과 이전으로 예금은행의 예대율이 급증하고 금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금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원사업,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림 7] 시군별 예금은행 여수신증가율과 예대율



- 대전충남지역은 ‘대덕R&D특구’와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첨단벤처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나,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 2007). 따라서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벤처캐피탈과 엔젤펀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 성장유망산업의 조기발굴지원과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평가와 벤처심사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 첨단산업 경력자나 이공계 출신으로 심사역을 보강하고, 벤처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야 하며 또한 정부,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등의 공동출자로 첨단벤처기업의 기술력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지역금융기관들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으며, 금융증권화에 따른 자금이탈과 금융노하우 및 전문 인력의 부족, 낮은 인지도와 단순한 수익구조, 금융 인프라와 첨단서비스의 열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첫째 관계금융(Relation banking)과 특화전략을 강화하고, 대형금융 기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발해야 한다.
- 지역밀착 금융기관들은 고객들과의 밀착관계로 정보 활용이 용이하며, 지역의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고객층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의 경우 오랫동안 축적된 비재무적 정보(soft information)를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 거래 관계를 활용하여 개별고객의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존의 상품중심에서 개별고객의 금융거래를 통합한 고객중심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기반의 영업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둘째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향상,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영세하거나 경영상태가 열악한 기관(조합)들은 M&A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대형기관(조합)들은 지역의 모점(Hub)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여러 개의 지점(In store branch 등)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구조개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규모의 확대, 금융 인프라의 확충과 선진금융 벤치마킹, 경영혁신 등을 통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아울러 임직원들의 리스크 및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 대형금융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신용리스크 분산, 대출심사기법의 선진화와 과학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기능 강화와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구축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지역금융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금융전문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보험회사는 물론 지역밀착 금융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품의 공동개발, 고객 DB 및 신용정보의 공유, 협조용자 및 공동사업 참여, 전산시스템의 공동개발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 그리고 단일창구에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बैं킹 (one stop banking), 업무다각화, FP나 특화서비스 마케팅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수요자중심의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관리와 운용, 고객정보관리, 국내외 금융경제동향 분석, FP 및 세금설계, 대출심사와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V. 결론 및 요약

- 외환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은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이 퇴출되고, 일반은행과 비은행기관 점포수도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퇴출률을 기록하여 지방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이 약화되었으며 지역자금의 역외로 유출되고 지역금융의 산업지원기능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금융활성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한 금융개혁을 추진하되, 시장논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금융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차원에서 정책적 배려와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첫째 지역환원금융 강화와 금융-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등과 같은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투자와 서비스제공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제도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와 금융간의 동태적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육성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지역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용보증과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신용정보를 축적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 셋째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공생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소재 금융기관과 자치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창업경진대회, 신기술 및 산학협력사업 박람회, 지방중소기업 관련 이벤트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또한 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육성, 관광과 이벤트 사업, 항만이나 유료도로와 같은 SOC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이나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금융수요로 연결시켜야 한다.

- 넷째 지역금융기관들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 관계금융(Relation banking)과 특화전략을 강화하고, 대형금융기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금융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금융전문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지역금융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역금융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지역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며, 지역간 금융 불균형과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강구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류 덕 위, dwryu@hanbat.ac.kr

안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el. 042-821-1301

김 양 중, kyj0509@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4

◆ 참고 자료 ◆

- 구재운, 문호성(2004),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경제분석], 제10권 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구재운(2005), “지역금융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 [한국경제연구], 제15권.
- 구재운, 문호성(2007), “은행 대출시장의 신용할당”, [산업경제연구], 제20권 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권순우(2008), “신금융자본주의”, 창립 22주년 기념 심포지엄, 삼성경제연구소.
- 김봉한(2003), “지역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은행 발표논문, 한은대전충남본부.
- 김영철, 강승구(2003), “지역금융시스템 구축: 지방은행과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3호.
- 김효명(2004),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26권 제3호.
- 류덕위(2000), “대전충남지역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13권 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_____ (2008),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신용협동조합의 발전방안”,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협동조합학회.
- _____ (2008), “대전충남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2008년 한국은행 지역경제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_____ (2009), “대전충남의 지역금융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협동조합연구], Vol.27, No.1, 한국협동조합학회.
- 박순양(2005),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희망연대 세미나자료.
- 박원석(1999),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삼성경제연구소.
- 신상기(2007), “경제위기 이후 10년의 국제경제여건 변화와 우리나라 금융변화에 대한 의미”, [200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제민(2007),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 해결과정과 결과”, [경제발전연구], 제13권, 제2호.

- 정재호, 박재필(2005), “미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금융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8권 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조복현(2005),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경제적 효과”, [사회경제평론], 제24호, 한국사회경제학회.
- _____ (2007),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사회경제평론], 제29호, 한국사회경제학회
- 조영삼(2008),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최종수, 조성일(2004), “지역금융과 지역경제발전: 인과관계의 검증”, [산업경제연구], 제17권 1호.
- 최진배(2002), “지방금융 활성화 대책과 지역금융: 하나의 비판적 고찰”, [지역사회연구], 제10권 2호, 한국지역사회학회.
- _____ (2004),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시장과 지방은행”, [사회경제평론], 제22호, 한국사회경제학회
- 함준호(2007), “외환위기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경제학연구], 제55집 4호.
- 홍순영, 이종욱(2005), [지역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경기개발연구원(2007),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 확립방안 연구].
- 한국은행(2007),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7), [대전충남 벤처기업과 은행간 관계분석 및 금융 활성화 방안]
- _____ (2008), [최근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 수신구조 변화의 특징].
- Amos, Orley M. and John R. Wingender(1993), "A Model of the Interaction between Regional Financial Markets and Regional Growth",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3, pp. 85-110.
- Berger, Allen N. and G. F. Udell(2002),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and relationship lending: The importance of bank organizational structure", *Economic Journal*, Vol.112, pp. F32-F53.
- Dow, Sheila C. and Carlos J.Rodriguez-Fuentes(1997), "Regional Finance: A Survey", *Regional Studies* 31, pp. 903-920.

- Feldstein,M.(1998),"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Mar/Apr 77.
- Goldsmith,R.W.(1969),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Yale Uni. Press.
- King,R.G. and R.Levine(1993), "Finance and Growth: Schumpeter might be Righ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717-737.
- Lazonick,W. & M.O'Sullivan(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 Society*, Vol.29.
- Levine,R., N.Loayza and T.Beck(2000),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Growth: Casualty and Caus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46, pp. 31-77.
- Patric,H.(1966),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 Levine,R.(2004),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10766, pp. 1-116.
- Rioja,F. and N.Valey(2003), "Finance and the Sources of Growth at Various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Inquiry*, Vol.42, No.1, pp.127-140.
- Samolyk,K.A.(1994), "Banking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of a Regional Credit Channe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34, pp 259-278.
- Stiglitz,J.E.(2008),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홍민경역, 21세기북스.
- Stockhammer,E.(2001), "Financialization, Corporate Governance and Effective Demand: Financialization and the Slowdown of Accumulation", Vienna Uni. of Economics.